



예방이 곧 안전확보의 지름길

한국화재보험협회 이복영 인천지부장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ry.or.kr

1970년대 초 잇따라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 서울시민회관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는 전사회적으로 국가 차원의 화재 안전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단순 화재사고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사고가 소방시설·관련법 미비, 소방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따라서 보험사가 방재전문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모델로 1973년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전국 주요 거점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이다. 인천의 경우 관내 공단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화재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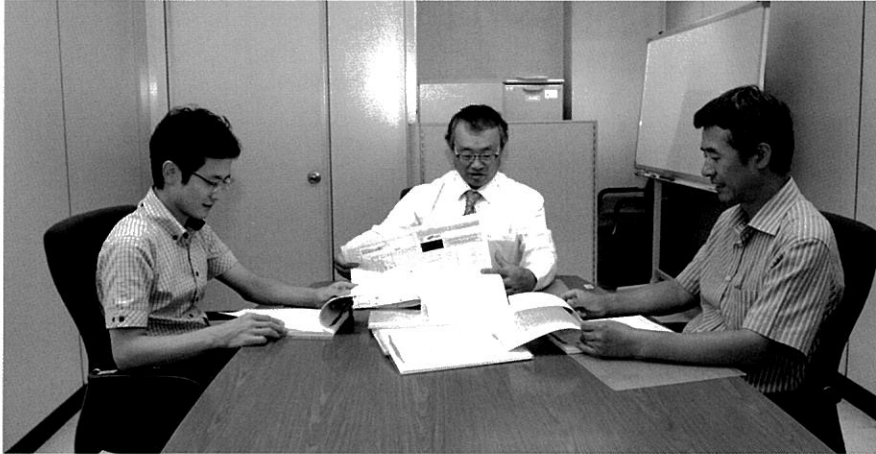
이런 약조건 속에서도 인천지부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관내 안전점검 대상 건물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9년에 6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이런 결실을 낼 수 있었던 것에는 인천지부의 수장인 이복영 지부장의 역할이 상당했다. 그가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갔기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전개됐는지 살펴봤다.

끊임없는 안전관리 활동 펼쳐

인천지부에서는 다수인이 출입, 근무, 거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유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장, 11층 이상인 건물 등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4,000여 개소의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교육, 화재예방계몽 등을 통한 사전예방활동과 신속한 재해복구,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한 사후 복구활동에 매진하고 있기도 하다.

즉 화재, 폭발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72.3%에 불과하던 방화시설의 양호율이 지난해 81.6%로 높아진 것에서 그 활동 성과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안전점검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복영 지부장이 안전교육 및 훈련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그는 연간 상시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가운데 개별 사업장의 현장에 맞춘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화재·폭발 사고에 의한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소방시설 선진화에 앞장

이 지부장이 인천지역의 특성에 정확히 맞는 화재안전관리를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크게 작용했다. 이 지부장이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팀장직을 맡을 때의 일이다. 그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불꽃감지기의 개발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지기 설치가 면제됐던 제철소와 같은 취약지역에도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개발 효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불꽃감지기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더 큰 일은 화재감지가 쉽지 않은 곳에 조기화재감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지요.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이 가능하면서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최신의 방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국내·외 세미나에 참석하고, 공정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법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안전은 행복의 밑거름

‘Safe is Happy, Safer and Happier’ 이는 안전에 대해 이복영 지부장이 마음 속 깊이 새겨 두고 있는 말이다. 안전은 행복이고 보다 더 안전해지면 보다 더 행복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이 말을 그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는 어떻게든 제거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저는 빨리 빨리 문화를 첫 손가락에 꼽고 싶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해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시대에 우리에게 ‘빨리빨리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품질’, ‘안전’이라는 단어보다 ‘공사기간’, ‘납품기일’이란 단어가 훨씬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은 확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난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합재해에 대한 예방 노력 필요

이복영 지부장은 앞으로 복합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매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진, 쓰나미,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그는 합리적인 위험성 평가기법 개발에도 힘을 계획이다. 최상의 방재 및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방재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는 것이다. 바로 사업장의 근로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일터가 즐겁고 보람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됩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를 비롯한 안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인들은 위험요소를 인식하는 남다른 눈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개선책을 수립·시행하는 행동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인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